

2020년 12월 8일(화)

07:00 배포

(배포 즉시 보도)

(총 4 매, 사진 있음)

담당 부서 : 동물권행동 카라 교육아카이브팀

담당 : 권나미 활동가 (02-6382-0999) 김명혜 활동가 (070-4760-1201)

(동물권행동 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가 제정·발표한 <인권보호준칙>을 준수하고자 노력합니다)

카라, 국내 최초 동물 출연 미디어 가이드라인 제작

- '영상 제작을 위해 어떤 동물도 죽거나 다치면 안 된다.' 기본 원칙 제시
- 2,000여 명의 시민 설문조사, 413개 유튜브 동물영상 모니터링, 157명의 미디어 종사자가 참여한 국내 동물촬영 실태 조사까지. 국내 동물 촬영 현주소를 가이드라인에 담아내
- 영화, 방송 현장뿐만 아니라 1인 미디어까지 범위 확장하여 성과 클 것

○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임순례)가 미디어 속 동물의 안전과 권리를 위한 '동물 출연 미디어 가이드라인 : 어떠한 동물도 해를 입지 않았습니다'를 제작했다. 국내 최초의 가이드라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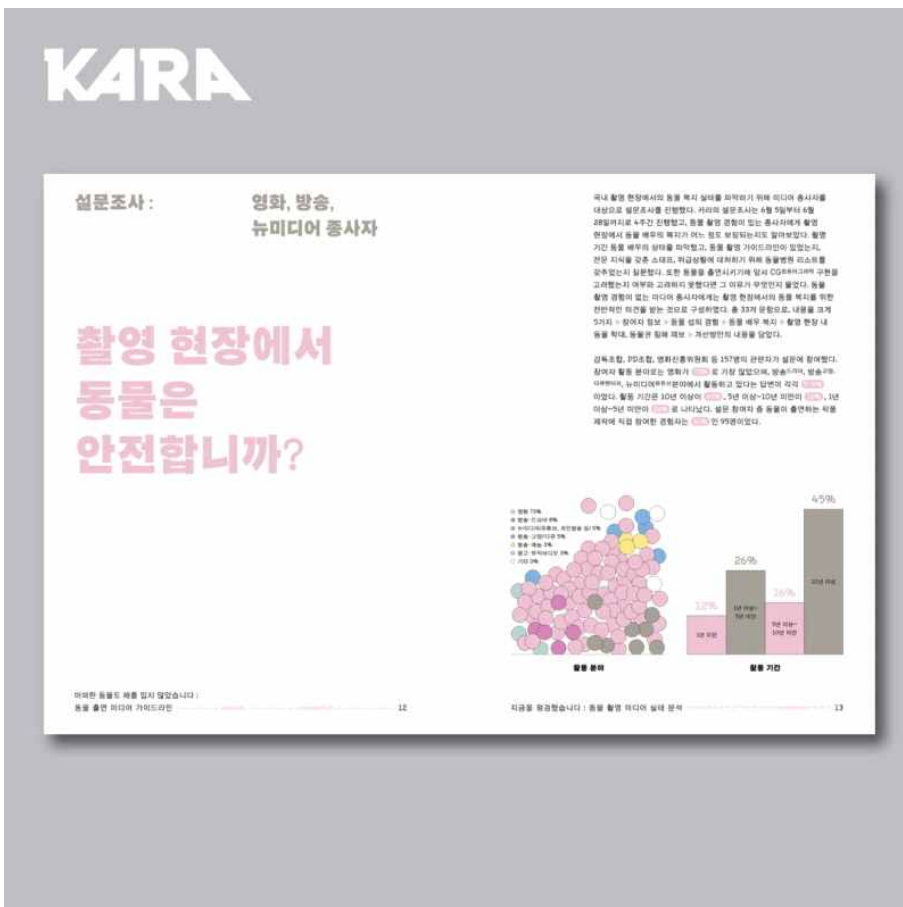
○ 카라의 가이드라인은 '영상 제작을 위해 어떤 동물도 죽거나 다치면 안 된다'라는 기본원칙을 제시하며, 네 가지 파트로 구성되었다. 1장은 실태분석으로, 2020년에 진행한 설문조사와 모니터링의 통계 자료와 의미를 정리했다. 2장은 동물과 인간 모두가 안전한 미디어를 제작하기 위해 갖춰야 할 원칙과 촬영 현장에서의 세부 사항, 종별 가이드라인을 담았다. 또한 촬영 현장에서 동물을 학대하는 정황을 포착하거나 동물 학대 영상물을 접했을 때를 위한 신고 매뉴얼도 제공한다. 3장은 법률로 분석하는 내용으로, 실제 있었던 미디어 동물학대 주요 사건과 가상 사례들에 따른 법적 판단과 처벌 가능성을 확인한다. 4장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동물 출연 미디어 가이드라인을 만들기까지 함께 해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 촬영 현장의 동물학대는 스태프의 정보 부족으로 일어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국내 첫 가이드라인 제시는 의미와 성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카라의 가이드라인은 영화와 방송 촬영 현장뿐만 아니라 1인 미디어까지 포함하여 범위를 확장했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동물 출연 미디어 가이드라인 제작을 시작으로, 인간과 동물이 모두 안전한 미디어를 만들기 위한 활동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 서울특별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으로 제작한 가이드라인은 영화/영상 관련 공공기관, 언론 및 방송단체, 영화/영상학 관련 대학, 엔터테인먼트 등 촬영 현장 및 관련 기관에 배포된다. 시민들은 카라 홈페이지에서 PDF 파일로 다운로드 가능하다.(<https://ekara.org/report/ekara>)

(끝)

이미지 자료 - 가이드라인 표지 및 내지 6장



안전한 동물 촬영의 초석
카라 대표 임순례

“이 영화에 출연한 동물은 안전하게 촬영되었습니다”

라는 자막이 올라올 때의 안도감

동물권행동 카라의 대표로서만이 아니라 영화감독으로서, 동물과 함께 촬영할 때 아무런 현상 여부 없이 있다는 사실이 항상 아쉬웠습니다. 촬영 현장에서 들려오는 이러한 소리는 거의 동물학대에 해당하는 내용도 많았기에 동물 촬영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이 매우 현실적이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영화와 드라마에서 촬영된 동물들의 존재가 커지는 흐름이기에 그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역시 영상 콘텐츠 속의 동물들이 잘 다뤄지고 있는지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영화 한 편이기에 “이 영화에 출연한 동물은 안전하게 촬영되었습니다”라는 자막이 올라올 때의 안도감을 항상 더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등 1인 미디어에서도 동물 관련 콘텐츠가 점점 더 증가하고 있고 일부 콘텐츠의 경우 조회 수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동물학대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동물 출연 영상의 창작자/수용자를 위한 미디어 가이드의 필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동물권행동 카라는 동물 촬영 가이드 초석을 놓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한국에는 기초적인 가이드조차도 없었기에 이번 규범이 아주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는 할리우드의 규정을 공평하게 참조하였고 한국적인 상황에 맞추어 정리하고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가이드는 이제 앞으로 많은 수정/보완 작업을 거쳐 동물 배우들이 영상 촬영 현장과 일상에서 안전하게 존중받으며 촬영되는 상황에 이르러야 할 것 같습니다.

가이드를 완성할 위해 같이 애써주신 동물권행동 카라의 권나미/김연혜 활동가들 비롯한 교육이커브팀원들과 감사의 말을 전하며 실무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가이드라인 제작을 지원해 주신 서울시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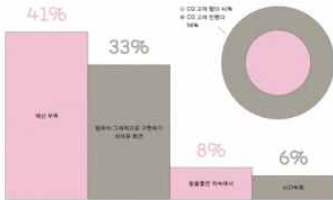
어떠한 동물도 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동물 출연 미디어 가이드라인

가이드라인 완성!

2-1-5. 58% 컴퓨터 그래픽 고려하지 못했다.

실제 동물이 출연하는 내선 컴퓨터그래픽으로 만든 현물을 고려한 적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33%가 '없다'고 답했다. CG를 고려하지 않은 이유로는 '예산 부족'과 '컴퓨터그래픽으로 구현하기 어려운 장면이라서'가 가장 많은 답변으로 나타났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동물은 인위적으로 '자기 몸 해를 끼는 경우가 많다. 동물에게 만기는 다체일하게 요구할수록 동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학대에 가까운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동물의 권리에 중립적인 사회적 분위기가 높아지면서 제작에서는 실사 동물 대신 CG를 사용하는 영화나 드라마들이 많아졌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CG로 구현하기 위해서 예산, 기술력, 그리고 시간을 반드시 확보되어야 가능하기때, 현실 실무자에만 어떠한 동물도 해를 입지 않는다는 점이 더 현실적인 방법으로 여겨졌다.



어떠한 동물도 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동물 출연 미디어 가이드라인

2-1-6. 8%는 촬영을 위해 '고의'로 동물에게 해를 가했다.

영화나 방송에서 때로는 동물을 때리거나 죽이고, 무고한 동물이 위험하거나 자칫하면 장면이 연출된다. 실제 촬영 현장에서 고의로 또는 시고로 동물을 죽이거나 다친 적은 있는지 묻는 조사자들에게 물었다.

고정된 동물로 인해 안전이 다른 경우도 생각해볼 필요가, 실제 관련된 시고에 관한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료를 발견했습니다! 동물 촬영 미디어 가이드

